

과잉 생산에 가격 ‘뚝’...전남도, 전복 양식 체질 개선 나선다

도, 전남연구원·전복 양식 어업인과 생산비 구조 분석 연구 추진
전복양식업 원가 구조 체계화·생산단가 산출 경영안정 전략 마련

전남도가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급락 위기를 맞고 있는 전복 양식업 문제점 개선에 나섰다. 전남도는 25일 “전복 양식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응책 마련을 위해 생산비 구조 분석 연구를 추진한다”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kg당 4만3478원이었던 전복 가격은 2022년 3만2754원, 2023년 2만8174원으로 하락했다. 지난해에는 2만1565원으로 떨어지며 2만원 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전복 가격 하락은 전복 과잉 생산에 따라 출하 시기 대량의 전복이 공급되면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남도는 이에 전남연구원, 전복 양식 어업인과 전복 양식업의 원가 구조를 체계화하고 양식 규모와 지역에 따라 세분화한 생산단가를 산출해 경영안정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연구 내용은 ▲양식 규모별 생산비 구조 ▲전복 가두리 등 시설투자비, 인건비, 유통비, 감가

상각비 등을 고려한 생산 원가 분석 ▲판매 미수별·양식 기간별 원가 산출 등이다.

기존 마리수별 판매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원가를 반영한 새로운 판매모형을 제시해 전복 판매 가격 표준화 모델을 마련하고, 출하 시점 최적화로 어가의 수익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전남도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복 양식업의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구조 개선 방안과 정책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구조 분석 연구는 어업인에게도 현실적 생산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 전복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시장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전남도는 내실 있는 연구 추진을 위해 최근 시군별 전복 양식 어업인 좌담회를 열어 현장 어업인 의견을 수렴, 연구 방향에 반영기로 했다”며 “전복 산업이 직면한 문제점을 파악, 전복 양식어가에 현실적으로도움이 되는 개선 방향 수립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2025 광주 미래산업 EXPO가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이 친환경 자동차를 비롯한 로봇, 드론 등의 미래산업 기술 및 융합산업에 쓰이는 기기 등을 관람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 서울서 산단 투자유치 설명회

여수국가산단 등 산업용지 소개

전남도는 25일 “서울 피스엔파크 컨벤션에서 산업단지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안내하고, 산업위기 극복에 나서는 석유화학 기업이 신산업 진출에 따라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용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남의 신규 산업용지를 소개해 큰 관심을 받았다.

신규 산업용지는 울촌 융복합물류단지, 묘도 항만재개발지구, 여수국가산단 확장단지 3개소다. 울촌 융복합물류단지는 약 100만 평 면적에 석유화학 등 부두를 설치할 예정으로 수출입에 강점이 있다. 입주 대상은 석유화학 업종과 물류 관련

업종이다.

묘도 항만재개발지구는 약 94만 평 중 20만여 평에 LNG탱크와 부두 등 관련 시설이 건축 중으로, 연관 산업 입주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여수국가산단 확장단지는 국내 최대 석유화학 단지 확장단지다. 구축된 인프라 활용이 가능하고 기존 공장으로부터의 거리가 짧아 연계가 가능한 점 등 단지별로 특색이 있어 참가 기업으로부터 관심을 모았다.

전남도는 이같은 기업의 관심이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로 이어지도록 투자유치 기업에 대상으로 기업별 1대1 컨설팅 등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국제농업박람회에서 아열대채소 선보인다

전남농업기술원, 전시장 운영

올해 10월 개막하는 ‘2025 국제농업박람회’에서 다양한 아열대채소를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25일 “국제농업박람회에서 기후변화 시대 유품작물로 주목받는 아열대채소 전시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술원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의 신소득 작목 발굴과 기능성 채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전시장 운영을 기획했다.

주요 전시 작물은 뽕오이, 여주, 팥호박, 공심채, 차요태 등 건강 기능성이 뛰어난 아열대채소다. 특히 이번 전시에선 바나나, 올리브 등 이색 열대식물도 함께 선보여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시장은 박람회장 내 전남도 전시관 일원에 조성되며, 관람객과 농업인의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술원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25 국제농업박람회는 오는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전남농업기술원(나주 산포면) 일원에서 개최된다. /김민석 기자 mskim@

최신 AI·모빌리티 기술 한자리에...광주미래산업엑스포 개막

28일까지 DJ센터

호남권 최대 산업전시회인 ‘2025 광주미래산업엑스포’가 25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나흘간 국내외 270여개 기업이 참여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총 570개 부스에서 미래 산업의 최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인다.

전시 기간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

부가 공동 주관하는 수출상담회가 함께 열려 지역 우수 참가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자율주행차 시승, 드론축구, 3D프린팅 체험, 로봇 요리 시연, EV차량 전시 등 전 연령층의 시민들을 위한 체험 콘텐츠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이밖에 ‘광주방문의 해’ 홍보부스 운영, 기업부스 경품 이벤트, 굿즈 할인행사 등 일반 시민도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26일에는 청년·중장년·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박람회인 ‘2025 광주 함께 JOB 페스타’가 열리며, 28일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로봇경진대회와

과학 인플루언서 허성범 씨의 AI 특별강연 등의 부대행사도 준비됐다.

‘2025 광주미래산업엑스포’ 일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누구나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

한편 현대차와 기아가 참여한 기술엑스포에서는 차세대 소프트웨어 중심공장(SDF) 구축의 핵심요소인 AMR-MPR(물류 모빌리티 로봇) 기술과 수요자 맞춤형 차량(PV5) 및 수직이착륙 UAM(미래항공모빌리티) 모형기 등이 전시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 외국인투자 400만달러 유치 성공

아이지스·라이섹과 협약...스마트팩토리 기반 유리 가공시설 착공

광주시가 400만 달러 규모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이끌어 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국내 단일 및 특수유리 가공설비 제조기업(주)아이지스, 오스트리아 유리 가공설비 전문기업 라이섹(LiSEC GmbH)과 ‘3자 간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주)아이지스는 광주 첨단산업단지에 스마트팩토리 기반 차세대 유리 가공설비 제조 시설을 7월 착공해 11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

어간다. 총 투자 규모는 400만달러(한화 약 40억원)에 달하며 신규 고용 인원은 10명이다.

이들 회사는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제조 생태계 우수한 정주여건과 기반시설(인프라) 산업단지와 연계된 기술 지원체계 등을 이유로 광주시와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이번 투자에 대해 투자 실행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 생산기반기술 인프라 안내, 조세감면 및 보조금 등 각종 특전(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다.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과 함께 지역 인재 우선 채용을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추진해온 미래형 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라고 자평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협약 투자로 광주가 스마트제조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지속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미래산업 도시로서 위상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아이지스는 빠른 설계·생산 대응 역량을 보유한 스마트 유리가공 설비 분야의 강소기업이며, 라이섹(LiSEC GmbH)은 1961년 설립된 세계적 유리 가공설비 자동화 전문기업으로, 100개국 이상에 고도화된 유리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피어나다 남원

고향사랑기부제로 남원을 응원해주세요

남원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개인)의 주소지가 남원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남원에 기부가능
- 1인당 연간 2,000만원까지 ※모든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 합산 기준

기부혜택

기부액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기부액 30%이내 답례품 제공

지역특산물, 남원사랑상품권 등

기부방법

온라인 기부

카메라 켜서 QR찍고!

QR코드 스캔하기

회원가입하고 남원시에 기부하기 누르고

기부액 입력하고 답례품 선택!

대면기부

농협창구 방문 신청(전국 어디서나)

2025년 남원시 고향사랑 기금사업

- 남원 미래인재 해외 영어 캠프
- 남원 인재학당 채움사업 (책상이자 세트, 서틀버스 구입)

문의 남원시 대외협력팀 063-620-6097

남원시에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세액공제 10만원, 답례품 3만원)을 돌려드립니다.